

## [獨]일본학술진흥회 산학협력연구회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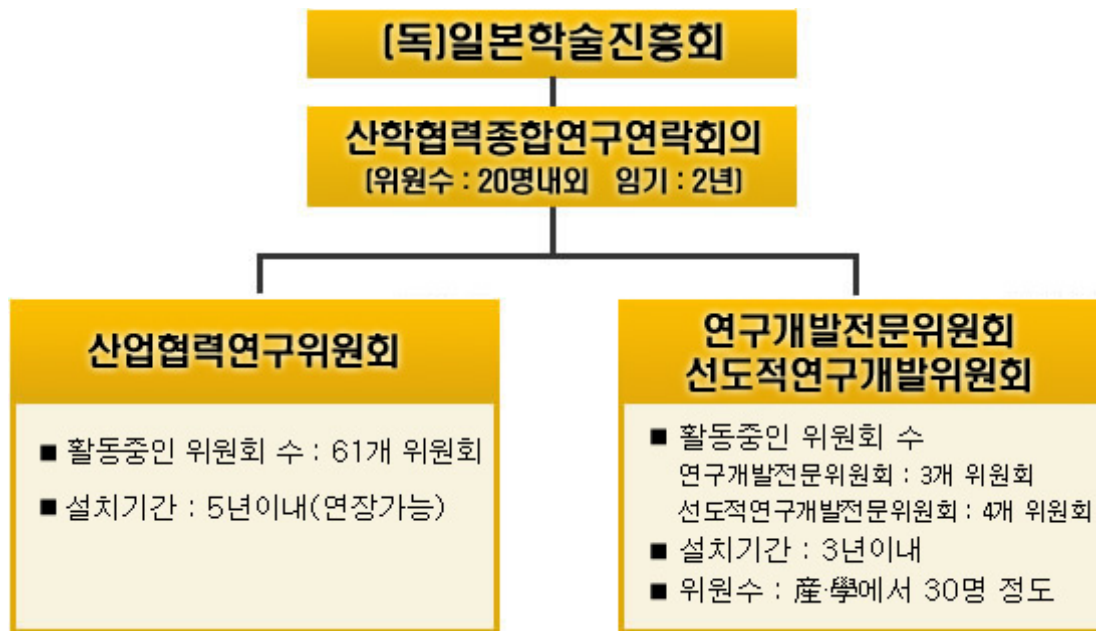
(獨)일본학술진흥회는 1933년 설립된 이래 일본의 학회와 산업계,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중추적 상호협력 매개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 산학협력종합연구연락회의를 기점으로 하는 산학연 협력체계 현황을 살펴보고, 케이스스터디로 차세대태양광발전연구를 담당하는 제175위원회를 소개함

### □ 産學研 상호협력의 장을 마련해온 일본학술진흥회

-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(JSPS)는 1933년부터 학회와 산업계, 기초연구와 개발연구의 상호협력의 매개역할의 일환으로 産學研 협력의 장을 제공해옴
- 학술장려를 위해 化學者 사쿠라이(櫻井) 등이 건의하고, 일본 왕이 문부대신에게 하사한 150만 엔으로 설립한 재단이 모태가 되어 1967년 특수법인, 2003년 독립행정법인으로 변모하면서 70여 년간 일본의 핵심 학술진흥 담당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옴
- 현재의 産學研연구회 원형인 산학협력연구위원회는 1934년 일본 학술진흥회 심의기관의 형태로 12개의 상설위원회가 설치됨
  - 1948년까지 129개 소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, 이후 연구회로 변경

### □ 현재의 ‘일본학술진흥회 産學研 연계체계’

- 학술의 사회적 협력과 연계사업추진을 위해 産學의 지도적 연구자로 ‘산학협력종합연구연락회의’를 구성하고 △산학협력연구위원회 △연구개발전문위원회 △선도적연구개발위원회를 두고 있음



출처: (獨)일본학술진흥회, 2010년 4월 현재

- 산학협력종합연구연락회의는 연구자·기업으로부터 제안 받은 산학협력연구위원회의 설치·연장 등을 심사하고, 학술진흥 발전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전문위원회 및 선도적연구개발위원회의를 설치하는 등 컨트롤타워역할 담당
- 산학협력연구위원회는 1993년부터 200개 이상의 산학협력연구위원회의가 설치되었고, 2010년4월 현재 61개 위원회(학계 약 2,700명, 산업계 약 1,700명 등 계 4,400명)가 활동 중임
  - 주요 활동내용은 △워크숍, 세미나 △산학협력국제심포지움 개최 △산학간 시즈·니즈 매칭을 통한 조사연구지원 및 실용화 유도 △젊은 기술자 육성 등이며, 위원회 활동은 기본적으로 산업계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며, 일본학술진흥회에서는 국제심포지움, 연구 성과물 발간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
- 연구개발전문위원회·선도적연구개발위원회는 산학협력종합연구연락회의의 委員이 제안하는 선도적 연구과제에 대한 조사·연구를 위해 활동기간 3년 이내의 위원회 형태로 설치됨

## □ (例) 第175연구회 소개

- ‘第175委員會’는 차세대 태양광발전시스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산업응용, 정보교환을 위해 2004년 일본학술진흥회 산학협력연구위원회에 설치됨
- 정식 명칭은 ‘차세대의 태양광발전 시스템 연구위원회’
  - ‘175’는 참여 기업·연구자 숫자가 아닌, 일본학술진흥회 산학협력연구위원회에 붙여지는 일종의 일련번호
- 현재 동경공업대학대학원 이공학연구과 전자물리공학전공의 고키나가이(小長井)교수가 위원장으로, 동경공업대, 도요타공대, 동경이과대 등 학계 70명, 산요, 미쯔비시, 샤프 등 산업계 74명 등 총 144명으로 구성
  - 한국에서는 LG전자 태양광에너지그룹, 한국철강이 멤버로 참여
- 차세대 태양전지 재료기술, 디바이스, 공정 및 시스템기술, 정책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, 국내 심포지엄을 연2회, 국제 심포지엄을 연1회 정도 개최하고 있음
- 연구협력 추진 체계는 셀·모듈을 만드는 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·연구기관에서 고효율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소재·장비회사들이 소재 및 장비를 공급하고, 인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연계되어 있음

## &lt;참고자료&gt;

일본학술진흥회(JSPS) 홈페이지 <http://www.jsps.go.jp>

관련법령: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술진흥회법 등

제175위원회 홈페이지 <http://solid.pe.titech.ac.jp/~gakushin>